

10대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 : 친조부모 · 외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A study on mothers' view on grandparents' role and grandsons' role :
comparative study according to lineage.

덕성여대 가정학과
조교수 서 동 인

Dept. of Home Economics Duksung Women's Univ.
Assistant Prof. : Dong In Suh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erspective of mothers who have children at teens concerning grandparents' role and grandchildren's role, especially focusing on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according to lineage. The analysis indicates as below.

1. Mothers highly expect the roles of grandparents which are related to the developing of self-identity of grandchildren at teens. There is much similarity between mothers' view on paternal grandparents' role and maternal grandparents' role. However the results support that paternal grandparents' role is more central than maternal grandparents in influencing to the development of self identity of grandchildren.

2. Grandchildren's role toward paternal grandparents is expected much more positively than grandchildren's role toward maternal grandparents.

3. Mother's perspective on grandparents' role and grandchildren's role is associated with mother's view on the importance of grandparents in the lives of grandchildren.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1996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동시대에 한 가족 안에서 여러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적인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삼세대 가족관계에 대한 관점 및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대사회는 연령에 따른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가족안에서도 그 영향을 전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적인 삶의 방향이란 역시 여러세대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 나가는 것일 것이다. 더군다나 한가족의 율타리안에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따뜻한 가족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삼세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역할기대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역할기대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상대에게 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되어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손자녀 관계에서는 조부모역할, 손자녀역할, 그리고 조부모-손자녀관계를 중재하는 모의 역할에 대한 상호적인 기대내용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관계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조모의 역할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며, 더군다나 조부역할이나 손자녀역할을 다룬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관점 및 중재에 관한 연구(1996)의 후속으로 진행된 논문으로, 10대 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동시에 이 역할기대가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모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갖는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조부모-손자녀관계에서 모가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많은 연구(김연수, 1993; 서동인, 1991; Cherin and Furstenberg, 1986))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10대 자녀를 둔 모를 선택한 것은 손자녀가 10대에 진입하면 조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 조부모-손자녀관계를 중재하는 모의 태도에 따라 조부모-손자녀관계의 속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서이다. 또한 10대 손자녀는 조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자신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론에서이다.

한편 우리의 친족관계는 부계제에 입각한 부계친편중의 권리·의무관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이효재, 1971; 최재석, 1982) 조부모-손자녀관계의 본질이 친가·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조부모-손자녀역할 기대를 친조부모·외조부모라는 두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가 기대하는 조부와 조모역할 내용이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모가 기대하는 손자녀역할 내용이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나타내는가?

셋째,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 역할과 손자녀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10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및 조부모에 대한 10대 손자녀역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듯 삼세대가족 안에서도 상대역할에 대한 서로의 욕구, 기대간의 일치와 차이만큼 클수록 이 관계가 쌍방향적으로 보상이 되어 친밀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삼세대가족에서 서로간

의 욕구를 조화스럽게 타협하고 조절해 나가는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역할기대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조부모역할 내용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어느 연령층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10대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조부모역할에 관한 것이므로 10대 손자녀와 조부모관계에 관련된 연구로 제한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런데 가족원들에게 조모가 조부보다는 심리적으로 더욱 더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세대간의 연결과정에서도 조모가 조부보다는 더욱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김재은, 1974; 조석미, 1980). 따라서 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조부보다는 조모와 손자녀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Kornhaber와 Woodward(1981)는 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손자녀에게 그림으로 조부모를 묘사하게 하고, 그린 그림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부모역할을 밝혔다. 그 내용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가족 역사를 제공하는 역사가의 역할, 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고 또한 손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케 하는 훈육자의 역할, 노화과정, 미래의 가족관계와 조부모역할을 보이는 역할모델로서의 역할, 손자녀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꾼의 역할, 손자녀의 지지체계를 확장시키는 대리모역할의 5개의 분류로 밝혀졌다.

18세에서 26세까지의 성인이 된 손자녀 86명을 대상으로 한 Robertson(1976)의 연구에서 손자녀는 조부모를 선물제공자, 가계역사와 전통의 소유자로서 손자녀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0대와 20대의 손자녀는 조부모가 선물을 주거나 같이 놀아주는 등의 상호성을 띤 내용보다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해주고 근면하면서 친구같은 조모의 성격특성이 이상적인 조부모상이라고 한다.

10대 손자녀와 조부모관계를 일방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Cherlin과 Furstenberg(1985)는 두 세대 사이에서 서비스의 교환이 일어나고 조부모는 손자녀의 훈육에 참여하고 손자녀의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등 손자녀에게 충고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임을 밝혔다. 서비스의 교환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거나 상대를 위하여 심부름을 해 주거나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내용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역할 뿐 아니라 손자녀역할까지도 포함시켜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조부모역할 이외에도 조부모역할의 상징적 의미가 지적되곤 한다(Bengtson, 1985; Troll, 1983). 조부모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아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의 지지체계로 기능하며, 필요할 때에는 가족에 개입하여 중심적인 역할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서동인(1996)은 손자녀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조부모역할내용을 구성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조부역할 내용은 인생의 근원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 심리적 지지자 및 가족의 해결자역할, 손자녀로부터 먼 무간섭자역할, 권위자역할, 적극적인 관여자역할로 분류되었고, 조모역할 내용도 이와 비슷하게 가족의 근원을 인식시키는 권위자역할, 심리적 지지자 및 삶의 방향제시자 역할, 적극적인 관여자역할, 먼거리의 무간섭자역할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부모역할 내용은 10대의 손자녀의 발달과업을 고려했고, 그리고 행동상에서 포착되는 조부모의 구체적인 역할 및 상징성을 띤 역할까지도 전부 포함시킨 포괄적인 조부모역할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조부모에 대한 10대 손자녀역할은 구체적 도움 제공 및 지지자 역할과 조부모를 따르는 추종자 역할로 밝혀졌다.

2.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조부모역할 및 손자녀역할

우리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는 현대 한국가족이 구조상으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고, 부계가족의 규범이 약화되어가고 있긴하나 여전히 확대가족의 원리가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효재, 1971; 정현희, 1978). 따라서 조부모-손자녀관계에서도 손자녀의 외조부모 지향의 친족관계가 증가하면서도 동시에 친조부모와의 관계와 외조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특성을 따면서 두세대에게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국민학생인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동인(1991)의 연구에서 친조모·외조모에 따른 조모의 역할기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세대간의 실제의 상호작용 횟수나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역할 수행수준에서 손자녀는 외조모와 더욱 더 만나고 동시에 조모역할 수행수준도 친조모보다는 외조모가 높아 손자녀는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의 영향력을 더욱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되는 조모역할은 친조모·외조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에서는 훈계자역할의 중요성이 큰 반면, 외조모와의 관계에서는 대리모역할의 의미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친조모와의 관계에서는 조부의 유무가 조모의 훈계자역할에 영향을 미쳐 손자녀의 친조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에 간접적 효과를 미쳐,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에서는 조부의 존재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조모와 손자녀관계와는 다른 속성을, 즉 감정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훈육적인 성격을 갖음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모의 조부모역할기대 및 손자녀역할기대도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3. 모의 조부모역할기대 및 손자녀역할기대의 영향 변수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개인적 또는 상황적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Johnson, 1983; 장희경·조병은, 1995) 모의 조부모역할 기대 및 손자녀역할기대도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부모의 건강은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하고 조부모가 건강할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과의 결속도 강하다. 나쁜 건강상태는 조부모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에 부담을 받게되는 가까운 가족들을 소원하게 만든다. 조부모가 소득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및 부양체계의 조건들을 결정함으로써 삼세대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고려된다.

동시에 조부모가 모와 갖는 심리적 친밀도의 정도도 조부모-손자녀관계를 중재하는 모의 행동이나 심리적 지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도 모의 조부모역할기대 및 손자녀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10대 자녀를 둔 모이다. 친조부모와 손자녀관계, 외조부모와 손자녀관계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질문지를 만들었고, 강북과 강서지역에서 다섯 중학교의 1,2학년 남학생 150명과 여학생 150명을 통하여 친조부와 친조모, 그리고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생존한 경우를 한정하여 편의표집을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연구 목적에 적절하게 큰 자녀가 10대를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였고, 조부모 중 한분만 생존한 경우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친조부모에 대한 응답 94부, 외조부모에 대한 응답 100부로, 총 194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PC로 분석 처리되었으며, 조부모-손자녀관계에 관한 상호적인 역할기대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를 사용하였다.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검증을,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척도의 구성

1)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 및 손자녀역할

조부모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수행 차원에서 포착되는 조부모의 역할과 상징성을 띤 조부모역할 내용까지 포함시킨 서동인(1996)과 Keneddy(1990)의 척도를 참고로 하였다. 조부모역할과 조모역할은 삶의 방향제시자역할, 심리적 지지

자역할, 가족안에서의 권위자역할, 손자녀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역할, 손자녀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무간섭자역할, 가족의 근원을 인식시키는 역할 등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총 21문항으로 조부모역할기대는 Cronbach $\alpha = .81$, 조모역할기대는 Cronbach $\alpha = .84$ 이다.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는 Kennedy(1990)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구성된 서동인(1996)의 10대 손자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였다. 손자녀역할기대는 구체적 도움제공 및 지지자역할의 9문항과 조부모를 따르는 추종자역할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문항은 Cronbach $\alpha = .88$ 이다.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의 점수가 높을수록 모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조부모와 모와의 친밀도

Bengtson(1982)의 긍정적인 정서지표(Positive Affect Index)를 번안하여, 모가 조부모와 어느 정도의 사소통하는가, 조부모와 어느 정도 인생관이 유사한가, 조부모가 모를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가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조부와 모의 친밀도는 Cronbach $\alpha = .75$, 조모와 모의 친밀도는 Cronbach $\alpha = .78$ 이다.

3)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조부모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

‘조부모가 안계시면 손자녀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의 문항으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모의 관점을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가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뜻한다.

IV.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10대 자녀를 둔 모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30대 58.5%, 40대 37.9%로 96.4%가 30, 40대이다. 모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 26.4%, 고졸 60.1%, 고졸이상 13.4%이다. 가족의 소득수준은 남편의 경우 80-110만원 17.6%, 110-140만원 20.2%, 140-170만원 17.6%, 170-200만원 10.9%, 200만원이상 25.3%이다. 모의 67.3%는 전업주부이며 취업한 경우 소득은 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상의 소득까지의 분포를 보이나 절반이상이 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연령은 52세에서 89세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친조부의 연령은 평균 72.3세, 친조모는 평균 68.4세, 외조부는 평균 69.1세, 외조모는 평균 65.9세로서, 친조부모보다는 외조부모의 연령이 낮다. 친조부모와 동거하는 사례는 15%, 외조부모와 동거는 5.9%이다. 이들의 자녀수는 2명이 78.2%, 3명이 14.5%이다.

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족소득, 자녀수에 있어서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친조부모(시부모)와 외조부모(친정부모)를 만나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이며, 외조부모보다는 친조부모를 좀 더 자주 만나고 있다($t=2.395^*$).

2. 연구문제 1: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모의 조부모역할기대¹⁾

조부모역할기대 척도는 5점이므로 4.5이상은 매우 긍정적인 수준, 3.5에서 4.5미만은 긍정적인 수준, 3에서 3.5까지는 중립적인 수준, 그 이하는 부정적인 기대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모의 친조부모역할기대를 살펴 보면, 손

1) 모의 친조부모·외조부모 역할기대 내용이 서동인(1996a)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를 조부와 함께 조모도 동시에 생존하는 경우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친조부·외조부에 따른 모의 조부역할기대

| 조부역할 기대 내용 | 친조부 M(S.D.) | 외조부 M(S.D.) | t-value |
|---|----------------|----------------|----------|
| 1.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에게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4.40 (1.07) | 4.15(1.16) | 1.539 |
| 2. 여러분이 원하는 할아버지는 당신에게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분이다. | 3.71 (1.36) | 3.76(1.29) | -.279 |
| 3.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가 충고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자녀를 도와야 한다. | 3.87 (1.34) | 3.83(1.26) | .210 |
| 4. 이상적인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자신의 근원인 뿌리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주셔야 한다. | 4.18 (1.09) | 3.65(1.21) | 3.215*** |
| 5. 이상적인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그냥 놔 두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 | 3.97 (1.29) | 4.09(1.22) | -.675 |
| 6. 손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할아버지가 좋은 역할모델(본보기)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 3.11 (1.33) | 3.11(1.33) | -.007 |
| 7.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를 사랑하고 자주 찾아 주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자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다. | 3.04 (1.41) | 3.20(1.16) | -.826 |
| 8. 부모인 여러분과 당신의 자녀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할아버지가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돕기를 기대한다. | 3.18 (1.49) | 3.20(1.26) | -.086 |
| 9. 좋은 할아버지란 집안에 문제가 생기 혼란스러울 때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 3.40 (1.49) | 3.14(1.31) | -.040 |
| 10. 손자녀를 이해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때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이해해주시기를 기대한다. | 3.62 (1.26) | 3.63(1.16) | -.057 |
| 11.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이여야 한다. | 3.53 (1.41) | 3.33(1.15) | 1.063 |
| 12. 할아버지는 손자녀들과 지내기 보다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과 지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호화) | 2.38 (1.18) | 2.48(1.29) | -.586 |
| 13. 부모가 손자녀를 지도하는 데 할아버지는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호화) | 2.83 (1.41) | 2.31(1.14) | 2.816** |
| 14. 이상적인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봐 주시는 분이시다(재부호화) | 2.28 (1.42) | 2.28(1.18) | -.017 |
| 15. 할아버지란 손자녀를 돕기에는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한다.(재부호화) | 2.56 (1.36) | 2.25(1.19) | 1.692 |
| 16. 좋은 할아버지란 가족내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다. | 3.73 (1.27) | 3.40(1.33) | 1.705 |
| 17. 좋은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손자녀에게 힘이되는 분이기를 원한다. | 4.20(1.10) | 3.89(1.19) | 1.909* |
| 18. 좋은 할아버지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돕는 분이시다. | 3.07 (1.42) | 2.70(1.37) | 1.812 |
| 19.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거들어 주시는 분이다. | 3.01 (1.30) | 2.62(1.27) | 2.100* |
| 20.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에게 용돈이나 선물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다. | 2.17 (1.14) | 2.34(1.25) | -.959 |
| 21. 좋은 할아버지란 존경받기를 원하는 노인이라고 보다는 좀 더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분이여야 한다. | 4.17 (1.11) | 3.95(1.04) | .945 |

* p<.05 ** p<.01 *** p<.001

자녀에게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보기가 되기를
(M=4.40), 존재 자체로도 손자녀에게 힘이 되기를

(M=4.20), 손자녀가 뿌리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를(M=4.18), 존경받기를 원하는 노인이라고 보

다는 좀 더 허물 없이 대할 수 있는 분이기(M=4.17), 손자녀가 버릇없이 굴때 그냥 놔두지 않기를(M=3.97), 손자녀에게 충고나 도움을 주기를(M=3.87),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 말씀하기를(M=3.87), 가족안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기를(M=3.73), 손자녀가 소외될 때 이해해 주기를(M=3.62), 심리적으로 손자녀가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M=3.53)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집안의 해결사역할이나(M=3.40), 모와 손자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서 잘 중재하기를(M=3.18), 직업선택에서 손자녀에게 모델이 되기를(M=3.11), 손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함께 하기를(M=3.04), 자녀 양육을 돕거나(M=3.07),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를(M=3.01) 기대하는 수준은 중립적이다. 그리고 친조부가 손자녀들과 지내거 보다는 같은 노인들과 지내야 한다고 여기며(M=2.38), 모가 손자녀를 지도하는데 간섭하지 않고(M=2.83), 손자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봐 주기를(M=2.28) 기대하고, 손자녀를 지도하기에는 친조부가 너무 구식이라고(M=2.56) 생각한다.

이상에서 모가 기대하는 10대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친조부역할 내용이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가 원하는 것은 손자녀의 생활이나 모가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 친조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거나 집안의 해결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나, 손자녀에게 삶의 근원이 되는 가치관이나 뿌리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손자녀의 심리적 지지자역할도 수행하는 내용이다.

외조부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에서도 몇 문항에서 모의 친조부역할기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친조부역할기대 내용과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10대 손자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손자녀의 발달과업과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손자녀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먼거리'에 존재하면서도 손자녀에게는 도움이 되는 조부'이기를 원하는 오늘날 30, 40대 모세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 모가 기대하는 친조부역할과 외조부역할의 내용이 이중적인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조부가 손자녀를 지켜만 봐 주기만을 원하면서도 훈육을 담당하고 중요한 삶의 근원의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기를, 그리고 조부가 권위를 부리기 보다는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분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안에서 중요한 권위를 행사하는 분기를 원하는 모의 기대는 조부편에서 이에 조화스럽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모의 조부모역할기대가 친조부·외조부에 따라 보이는 유의한 차이는 다음의 문항에서 나타난다. 손자녀의 뿌리의식을 갖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면에서 외조부(M=3.65) 보다는 친조부(M=4.18)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높고($t=3.215^{***}$), 부모가 손자녀를 지도하는데 조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에서 친조부(M=2.83)보다는 외조부에게(M=2.31) 더욱 그러기를 기대하며($t=2.816^{**}$), 존재 자체로도 손자녀에게 힘이되기를 원하는 면에서는 외조부(M=3.89)보다는 친조부에게(M=4.20) 더욱 기대하며($t=1.909^*$) 외조부(M=2.62)보다는 친조부(M=3.01)에게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를 더 기대한다($t=2.100^*$).

총체적으로 볼 때 모의 조부역할기대는 친조부·외조부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조부보다는 친조부가 손자녀에게 더욱 중심적인 존재로서 가문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징성을 띠긴하나 손자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가족문화의 특성이 반영되는 결과라 하겠다.

<표 2>에서 모가 기대하는 친조부역할기대는 손자녀에게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모기가 되기를(M=4.17), 손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훈육자역할을 하기를(M=4.08), 존재 자체로도 손자녀에게 힘이되기를(M=3.88), 손자녀가 필요할 때 충고나 도움을 주기를(M=3.89), 가족의 전통, 가문, 가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M=3.79), 소외되었을 때 손자녀를 이해해 주시기를(M=3.65), 손자녀와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기를(M=3.59), 부모와 손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서 의사소통이 잘되도

〈표 2〉 친조모·외조모에 따른 모의 조모역할기대

| 조모역할 기대 내용 | 친조모 | 외조모 | t-value |
|--|--------------|--------------|----------|
| 1. 좋은 할머니란 가족내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다. | 2.989(1.371) | 3.080(1.338) | -.465 |
| 2. 이상적인 할머니란 손자녀가 자신의 근원인 뿌리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다. | 3.447(1.292) | 3.188(1.206) | 1.443 |
| 3. 좋은 할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손자녀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다. | 3.883(1.269) | 3.752(1.152) | .750 |
| 4. 좋은 할머니란 집안에 문제가 생기 혼란스러울 때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 3.170(1.333) | 3.180(1.282) | -.052 |
| 5. 이상적인 할머니란 손자녀가 버릇없이 굴때 그냥 놔두지 않는 분이여야 한다. | 4.075(1.236) | 4.230(1.144) | -.901 |
| 6. 여러분이 원하는 할머니는 당신에게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분이다. | 3.787(1.286) | 3.297(1.205) | 2.742** |
| 7. 손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할머니가 좋은 역할모델(본보기)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 3.032(1.240) | 2.790(1.233) | 1.362 |
| 8.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에게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보기가 되어야한다. | 4.170(1.033) | 3.930(1.157) | 1.527 |
| 9.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가 충고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자녀를 도와야한다. | 3.796(1.119) | 3.723(1.124) | .453 |
| 10. 손자녀를 이해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때 할머니가 손자녀를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3.645(1.282) | 3.540(1.234) | .580 |
| 11.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를 사랑하고 자주 찾아 주시고 즐겨 함께 시간을 가지고 손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다. | 3.591(1.191) | 3.606(1.150) | -.087 |
| 12. 할머니란 손자녀가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 3.500(1.225) | 3.300(1.159) | 1.167 |
| 13. 부모인 여러분과 당신의 자녀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할머니가 중간에서 이 두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돕기를 기대한다. | 3.574(1.291) | 3.376(1.207) | 1.106 |
| 14. 이상적인 할머니는 집안일을 거들어 주시는 분이다. | 2.728(1.250) | 2.760(1.256) | -.175 |
| 15.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에게 용돈이나 선물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다. | 2.149(1.191) | 2.356(1.213) | -1.205 |
| 16. 좋은 할머니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돕는 분이다. | 2.968(1.410) | 2.337(1.211) | 3.331*** |
| 17. 좋은 할머니는 손자녀를 자신의 미래의 희망으로 여겨 경제적·심리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다. | 2.255(1.336) | 2.130(1.051) | .723 |
| 18. 이상적인 할머니란 손자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재부호화). | 2.702(1.318) | 2.390(1.162) | 1.745 |
| 19. 부모가 손자녀를 지도하는 데 할머니는 간섭을 하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호화). | 2.936(1.326) | 2.290(1.103) | 3.676*** |
| 20. 할머니는 손자녀를 돕기에는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한다(재부호화). | 2.702(1.243) | 2.396(1.209) | 1.741 |
| 21. 할머니는 손자녀들과 지내기 보다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과 지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호화). | 2.591(1.218) | 2.515(1.293) | .425 |

* p<.05 ** p<.01 *** p<.001

록 돕기를(M=3.57), 손자녀의 심리적 지지자역할을 하기(M=3.50) 긍정적인 수준으로 기대한다. 손자녀에게 뿌리의식을 갖는데 영향을 끼치는 면과(M=3.45), 손자녀의 직업선택에서 모델이 되는(M=3.03)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기대수준이다. 친조모가 자녀 양육을 돕기를(M=2.97),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를(M=2.73), 가족안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기를(M=2.99), 손자녀에게 용돈이나 선물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M=2.15) 바라는 수준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조모가 손자녀를 간섭하지 않고(M=2.94), 손자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봐주기를(M=2.70) 바라고, 손자녀를 돕기에는 조모가 너무 구식이라고 여기며(M=2.70), 손자녀와 지내기 보다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과 지내기를 기대한다(M=2.59).

외조모역할기대도 전반적으로 볼 때 위에서 밝힌 친조모역할기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모가 기대하는 친조모·외조모역할은 친조부·외조부 역할기대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10대 손자녀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기대수준이 높고, 손자녀를 이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인 지지를 하는 영역에서 친조부·외조부역할기대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 친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영역은 조부보다는 조모에게 더욱 더 기대되어지고 있고, 또한 조부보다는 조모와 손자녀들이 더 가까운 심리적 친밀도를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해석된다.

모의 조모역할기대는 친조모·외조모에 따라 다음의 3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거나(t=2.742**), 자녀양육에 참여하는(t=3.331***)면에서는 외조모보다 친조모에게 더욱 기대한다. 그러나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에게 부모의 손자녀 지도에 간섭하지 말기를 기대하는 수준이 높다(t=3.676***).

모의 조모역할기대에서도 모의 조부역할기대에서도 같이 손자녀의 가문의 소속감에 대한 사회화역할에서 외조모 보다는 친조모에게 바라는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2: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모의 손자녀역할기대

먼저 모가 기대하는 손자녀역할의 전반적인 경향을 <표 3>에서 살펴보자. 외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에서의 3문항(손자녀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조부모님께 말씀드리어 아시게 하여야 한다(M=3.25), 손자녀는 조부모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M=3.31), 손자녀는 조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가풍, 전통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M=3.28)을 제외하고는 친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이나 외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 모두 전 문항이 3.5이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수준을 보인다. 문항 1에서 9까지는 조부모에게 구체적 도움제공 및 심리적 지지자역할내용이고 나머지 문항인 10과 11은 조부모님을 따르는 추종자역할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모가 기대하는 손자녀역할은 조부모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는 추종자역할보다는 조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에서 기대수준이 높다.

특히 모가 기대하는 외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 수준보다 친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 조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드려야 한다(t=3.233***), 조부모가 편찮으실 때 간호를 해 드려야 한다(t=3.267***), 조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t=1.915*), 조부모를 사랑하여야 한다(t=2.890***), 조부모를 자주 찾아 봐야 한다(t=2.378*), 조부모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활동을 가져야 한다(t=2.406*),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조부모가 잘 아실수 있도록 해야 한다(t=2.508**)는 내용에서 친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가 외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보다 유의하게 높다. 조부모가 말씀하시는 가풍, 전통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도 친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가 외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보다 유의하게 높다(t=3.979***).

앞에서 모의 조부, 조모 역할기대 내용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우리의 가족 생활이 부계원리에 크게 지배받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부계적인 특성이 모의 손

〈표 3〉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모의 손자녀역할기대

| 손자녀역할기대 | 친조부모 M(S.D.) | 외조부모 | t-값 |
|--|-----------------|------------|----------|
| 1. 손자녀는 조부모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와 드리야한다. | 4.66 (.63) | 4.27(1.03) | 3.233*** |
| 2. 손자녀는 조부모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 4.63 (.72) | 4.28(1.00) | 2.890** |
| 3. 손자녀는 조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간호해 드리거나 잘 보살펴 드리야한다. | 4.52 (.76) | 4.10(1.03) | 3.267*** |
| 4. 손자녀는 조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하여야 한다. | 4.49 (.86) | 4.24(.97) | 1.915* |
| 5. 손자녀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부모님을 자주 찾아 봐야 한다. | 4.16 (.99) | 3.81(1.07) | 2.378* |
| 6. 손자녀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보하거나 시간을 같이 하는 활동을 가져야 한다. | 4.05 (.99) | 3.67(1.21) | 2.406* |
| 7. 손자녀는 조부모님께서 심심해 하실 때 옆에서 친구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 3.87(1.16) | 3.81(1.12) | .359 |
| 8. 손자녀는 조부모님에게 현대적인 사고와 활동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3.87(1.06) | 3.63(1.13) | 1.539 |
| 9. 자녀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조부모님께 말씀드리어 아시게 하여야 한다. | 3.64(1.01) | .25(1.15) | 2.508** |
| 10. 손자녀는 조부모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3.58(1.17) | 3.31(1.17) | 1.584 |
| 11. 손자녀는 조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가풍, 전통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93(1.10) | 3.28(1.18) | 3.979*** |

* p<.05 ** p<.01 *** p<.001

자녀역할기대에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친족관계가 과거보다는 양방 지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친족관계가 아직까지는 부계우위의 원리에 의해서 여전히 적용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부역할기대 내용과 조모역할기대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이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삼세대 가족관계가 양방지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가 원하는 조부모역할기대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연구(박의순, 1990; 서동인, 1991)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도 외조부모-손자녀관계가 친조부모-손자녀관계보다 더욱 더 친밀한 것으로($t=-2.128^*$) 모가 보고한다. 하지만 손자녀는 외조부모보다 친조부모를 더 자주 만나고 있고($t=3.320^{***}$), 모가 기대하는 손자녀역할 수준이 외조부모 보다는 친조부모

에 대한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다. 그리고 〈연구문제 1〉에서 밝혀진 외조부모역할기대와는 다른 친조부모역할기대 내용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보면 10대 손자녀의 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에는 친조부모의 역할이 외조부모의 역할 보다 더욱 더 중심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외조부모역할이 10대 손자녀의 발달과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친조부모-손자녀관계와 외조부모-손자녀관계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친족관계의 연구(김경원, 1989; 이경희, 1988; 최재석, 1982)에서 밝혀지듯이 다른 성격을 띠면서, 즉 정서적 친밀감에 있어서는 외가 중심적이며 정체감과 관련하여서는 부계지향적인 특성을 띠면서 서로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동시에 기대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연구문제 3: 모의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의 영향변수

친조부역할기대의 전체 점수는 30-102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74.12, 외조부역할기대는 41-101까지의 분포로 평균 73.30, 친조모역할기대는 31-99까지의 범위로 평균 70.51, 외조모역할기대는 43-99까지의 범위로 평균 68.91로서 모의 친조부모역할기대는 외조부모역할기대보다 높다.

조부모역할기대를 종속변수로 하고 모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소득,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 조부모의 경제의존도,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부모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 모와 조부모간의 친밀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1>과 <표 4-2>에 제시되었다.

모의 친조부역할기대는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부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485^{***}$), 조모의 친조모역할기대는 조모의 연령이 젊을수록($\beta=-.323^{**}$),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모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beta=.564^{***}$) 높아진다.

모의 외조부역할기대는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외조부의 중요성이 크다고 모가 생각할수록($\beta=.272^{**}$), 모와 외조부가 친밀할수록($\beta=.355^{**}$) 높아진다. 모의 외조모역할기대는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220^*$), 외조모의 연령이 젊을수록($\beta=-.278^{**}$),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모의 중요성이 크다고 모가 생각할수록($\beta=.406^{***}$) 높아진다.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역할기대에서 공통되게 손자녀 삶에서 조부모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모가 생각할수록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현재 30,40대 모세대가 조부모-손자녀관계에서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이 변수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난 결과는, 만약 조부모세대

가 손자녀에게 긍정적인 발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조부모-손자녀관계를 증대하는 모가 조부모에 대한 역할기대를 높게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의 기대는 삼세대가족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측을 가능케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모의 외조모역할기대에서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조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결과를 다음의 연구를 인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교육이 전통적인 부계형에서 양계형과 모계형의 친족관계로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변수라고(이효재, 1971) 하는 주장이나, 그리고 도시의 핵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한 연구(김경원, 1989)에서 주부의 교육수준이 시가와의 관계에서는 정의적 유대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친정과의 관계에서는 비공식적 활동중심의 회합적 유대와 수혜적 중심의 기능적 유대와 정적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다. 친조부모와의 관계는 외조부모와의 관계보다는 공식적이고 의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모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외조모역할기대에서는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와 친조부모와의 관계가 의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모와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친조부모역할기대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와도 관련시켜 추론할 수 있다.

친조부와 외조부역할기대에서와는 달리 친조모와 외조모역할기대에서 조모의 건강이 설명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손자녀와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역할내용에서 조부보다는 조모에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모가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모의 손자녀역할기대는 27-55까지의 분포를 이루며 친조부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는 평균 45.37, 외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는 평균 41.90이다.²⁾ <표 5-1>와 <표 5-2>에서 친조부모에 대한 모의 손

2) 손자녀역할은 친조부와 친조모를 함께 묶고, 외조부와 외조모를 함께 묶어 질문하였다. 그러나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표 4-1〉 모의 조부역할기대에 관련되는 변수들의 영향력

| 독립변수 | 친조부역할기대 | | 외조부역할기대 | |
|----------------------------------|----------|---------|----------|---------|
| | b | β | b | β |
| 모의 연령 | .366 | .095 | .349 | .085 |
| 모의 교육수준 | 2.133 | .146 | -.549 | -.040 |
| 가족소득 | -.462 | -.089 | .128 | .031 |
| 거주지의 근접도 | -.402 | -.067 | .315 | .044 |
| 조부의 연령 | -.135 | -.067 | -.128 | -.066 |
| 조부의 건강상태 | 1.445 | .120 | 1.139 | .112 |
| 조부의 경제의존도 | -.602 | -.043 | -2.442 | -.189 |
|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부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 | 4.820*** | .485 | 2.466*** | .272 |
| 모와 조부와의 친밀도 | .653 | .166 | 1.757 | .355 |
| R ² | .411*** | | .443*** | |
| 상수 | 42.451* | | 41.384* | |
| N | 94 | | 100 | |

* p<.05 ** p<.01 *** p<.001

〈표 4-2〉 모의 조모역할기대에 관련되는 변수들의 영향력

| 독립변수 | 친조모역할기대 | | 외조모역할기대 | |
|----------------------------------|----------|---------|----------|---------|
| | b | β | b | β |
| 모의 연령 | .471 | .121 | .568 | .137 |
| 모의 교육수준 | 2.630 | .180 | 2.904* | .220 |
| 가족소득 | -.664 | -.119 | -.584 | -.155 |
| 거주지의 근접도 | .060 | .010 | 1.109 | .167 |
| 조모의 연령 | -.659** | -.323 | -.595** | -.278 |
| 조모의 건강상태 | -1.50 | -.106 | .973 | .099 |
| 조모의 경제의존도 | -.306 | -.022 | 1.315 | .108 |
|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모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 | 6.136*** | .564 | 3.590*** | .406 |
| 모와 조모와의 친밀도 | .342 | .069 | .918 | .195 |
| R ² | .444*** | | .473*** | |
| 상수 | 72.394* | | 44.543* | |
| N | 94 | | 100 | |

* p<.05 ** p<.01 *** p<.001

자녀역할기대는 친조부의 경우 조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beta=-.263^*$), 그리고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부의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beta=.408^{**}$)

손자녀역할기대가 높다. 친조모에 대한 모의 손자녀 역할기대는 거주지가 근접할수록($\beta=.108^{**}$), 조모가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표 5-1〉 모의 조부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 독립 변수 | 친조부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 | | 외조부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 | |
|-------------------------------|-----------------|---------|-----------------|---------|
| | b | β | b | β |
| 모의 연령 | .121 | .067 | .520 | .174 |
| 모의 교육수준 | 1.110 | .168 | .905 | .095 |
| 가족소득 | -.589 | .216 | .376 | .132 |
| 거주지의 근접도 | -.226 | -.081 | .374 | .132 |
| 조부의 연령 | -.131 | -.134 | .106 | .077 |
| 조부의 건강상태 | -.1490* | -.263 | .550 | .079 |
| 조부의 경제의존도 | .706 | .108 | .342 | .037 |
|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부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 | 1.900*** | .408 | .342 | .054 |
| 모와 조부와 친밀도 | .304 | .114 | 1.203 | .342 |
| R ² | .271* | | .184 | |
| 상수 | 55.436 | | 1.727 | |
| N | 94 | | 100 | |

* p<.05 ** p<.01 *** p<.001

〈표 5-2〉 모의 조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 독립 변수 |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 | | 외조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 | |
|-------------------------------|-----------------|---------|-----------------|---------|
| | b | β | b | β |
| 모의 연령 | -.007 | -.004 | .320 | .108 |
| 모의 교육수준 | 1.063 | .153 | .314 | .033 |
| 가족소득 | -.333 | -.127 | -.247 | -.094 |
| 거주지의 근접도 | .287** | .108 | .409 | .087 |
| 조모의 연령 | -.340 | -.333 | -.340 | .107 |
| 조모의 건강상태 | -.617 | -.093 | .211 | .030 |
| 조모의 경제의존도 | .103 | .016 | -.894 | -.100 |
|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조모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 | 1.877** | .378 | 3.105*** | .488 |
| 모와 조모와의 친밀도 | .102 | .043 | .139 | .039 |
| R ² | .241* | | .296*** | |
| 상수 | 60.402 | | 5.145 | |
| N | 94 | | 100 | |

* p<.05 ** p<.01 *** p<.001

($\beta=.378$ **), 모의 손자녀역할기대가 높다.

외조부모에 대한 모의 손자녀역할기대는 외조모의

경우에서만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이 유의한데 외조모

가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고 모가 생

각할수록($\beta=.488^{***}$) 모의 손자녀역할기대가 높다.

모의 손자녀역할기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여서 이를 설명하는 회귀방정식이 모의 조부모역할기대에 관한 회귀방정식보다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부모가 손자녀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이 가장 설명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결과는 모의 조부모역할기대의 분석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조부모의 건강과 거주지의 근접도는 모의 조부모역할기대에서와는 달리 모의 손자녀역할기대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 변수들이 삼세대 가족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은 '먼거리'에 존재하면서도 손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조부모'를 원하고 있어 이는 조부모편에서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중적인 메시지라고 본다.
2. 모는 조부, 조모가 10대 손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역할수행을 높이 기대한다.
3. 친족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모의 조부모역할기대도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10대 손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친조부모가 더욱 더 중심적인 존재로 기대되어 지고 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성격을 띠며 손자녀에게 기능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대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4. 모의 손자녀역할기대에서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조부모역할기대에서 보다 더욱 더 부계적인 특성을 보여 모의 친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가 외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보다 유의하게 높다.
5.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역할기대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

한 존재인가에 대한 모의 관점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 현재 30,40대의 모세대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뒤따를 때 삼세대 가족관계의 역동을 설명하는 연구를 만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10대 손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앞으로 손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모의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조부모의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가 높아지는 결과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발달적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동시에 조부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손자녀의 삶에 미치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조부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 손자녀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밝힌 모의 조부모역할기대와 손자녀역할기대와 함께 총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역할에 관한 상호기대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삼세대 상호간의 기대가 총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1996).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관점 및 증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153 - 166.
 - 6) 이경화(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7)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총서* 27. 서울: 한국연구원.
 - 8) 조석미(1981).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구조: 대구시 중류층 노인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10) Bengtson, V. L.(1985). Diversity and Symbolism in Grandparental Roles. In V. L. Bengtson and J. 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12-25.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11) Cherlin, A. J. and Furstenberg, Jr.(1985). Styles and Strategies of Grandparenting. In V. L. Bengtson and J. 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92-116.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12) Denham, T. E. & Smith C. W.(1989).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on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8, 345-350.
 - 13) Hagestad, G. O.(1985). Continuity and Connectedness. In V. L. Bengtson and J. 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31-48.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14) Hartshorne, T. S. and Manaster, G. J.(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 223-245.
 - 15) Johnson, C. L.(1983). A Cultral Analysis of the Grandmother. *Research on Aging*, 5, 547-568.
 - 16) Judson, J. S.(1985). Older Grandparents' Perception of Generativity in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17) Kahna, E. and Kahna, B.(1970). Grandparenth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Grand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3, 98-105.
 - 18) Kennedy, G. E.(1990). College students's expectations of grandparent and grandchild role behaviors. *The Gerontologist*, 30, 43-48.
 - 19) Kivnick, H. Q.(1982). Grandparenthood: Overview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Gerontologist*, 22, 59-66.
 - 20) ———(1983). Dimensions of grandparenthood meaning: Deductive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de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56-1068.
 - 21) Kornhaber, A. and Woodward, K. L.(1981).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Y.: Anchor Press/Douleday.
 - 22) ———(1985). Grandparenthood and the New Social Contract. In V. L. Bengtson and F. 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159-171.
 - 23) Mathews, S. and Sprey, J.(1985).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0, 621-626.
 - 24) Mead, M.(1972). *Blackberry Winter*.
 - 25) Neugarten, B. L. and Weinstein, K.(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6, 199-204.
 - 26) Presser, H. B.(1989). Some economic complexities of child care provided by grand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81-591.
 - 27) Robertson, J. F.(1976). Significance of Grandparents: Perception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16, 137-140.
 - 28) Roberto, K. A. and Stroes, J(1992).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Roles,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and Human Development*, 34(3) 227-239.